

합당한 예배

출 38:1-20

2021년 10월 26일(화)

1.

성막에 대한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성막뜰-성소-지성소’입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먼저 나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뜰을 성막뜰이라고 부릅니다.

물두멍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편에는 금등잔대가 놓여 있고, 오른 편에는 진설병상이 놓여 있고,

앞쪽에는 금향로가 놓여 있습니다.

금향로 앞에는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문에서부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 안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쉽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37-38장은 성막을 구체적으로 짓는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 보면, 제일 먼저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궤와 속죄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상과 등잔대, 분향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38장에서는 성막 뜰 안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듭니다.

성막 기구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성소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성막뜰...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가장 중요한 곳이기에 지성소 안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란, 뒤로 밀려나도 되고, 때론 skip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못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지성소 안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지성소 안 언약궤 위,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첫 시간에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먼저'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먼저 만나야 될 분, 언제나 먼저 섬겨야 할 분, 언제나 먼저 따라야 할 분, 언제나 먼저 생각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

1-7절까지는 번제단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8절은 물두멍을 만드는 과정이요,

9-20절까지는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중에서도 특별히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번제단의 특징은 조각목에 놋을 입혀서 만드는 데,

중요한 것은 '네모가 반듯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번제단은 예배를 의미하는 데,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은 언제나 '네모 반듯'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이 네모 반듯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반듯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자는 언제나 반듯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단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 제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분향단에서도 매일 아침과 저녁, 향연(기도)을 올려 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예배와 기도로 시작해서, 예배와 기도로 마무리 되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와 기도로 마치는 것이 성도들의 구별된 삶입니다.

번제단은 번제물을 불태우고,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대신 동물의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죄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피흘림 없이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번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의 피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된 겁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를 사함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3절 하반절을 보면 ‘불 옮기는 그릇’이 나옵니다.

‘불 옮기는 그릇’은 제단에서 불뚱을 담아 성소 안의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데 사용합니다.

이것을 ‘향로’로 칭하기도 합니다.

이 ‘향로’는 제단에서 불뚱을 담아 성소 안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에 사용할 뿐만 아니라,
향이 타고 난 재를 청소할 때도 이 그릇에 담아 나왔을 겁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와 그의 무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향로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다가 순식간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합당한 향로를 사용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향로를 사용한 결과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가를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합당하지 않은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성도가 드릴 합당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번제단 앞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4.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막은 지성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소, 성막 뜰.. 순서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부터 먼저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바쁘면 뒤로 밀려나도 되고, 스킵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가장 먼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 우선순위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 먼저’인 자가 됩시다.

또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는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요, 내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됩시다.